



레나의 이야기

연령대: 55~60세

직업: 아동 보호 관리자

구사 언어: 영어와 그리스어

그리스계 호주인인 레나에게 가족은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녀의 아들, 이아손이 희귀한 신장 및 안과 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그 가족의 유대감은 큰 시련을 겪었다.

그 직후, 남편 게오르기오스가 4기 전이성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모든 것이 완전히 충격으로 다가 왔어요,” 라고 레나가 말한다. “사전 징후도 없이, 우리는 갑자기 의료 시스템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일괄 청구 제도 덕분에 우리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일반의 진료비 일괄 청구 덕분에 레나의 가족은 빛 걱정 대신 건강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일괄 청구 덕분에 병원 방문을 미루지 않게 되었고, 진행성 질환 관리에 아주 중요한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 가정은 이미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일괄 청구 제도가 그 부담을 덜어주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 즉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레나



상세정보를 보려면 이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인근에서 일괄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찾으려면,
[health.gov.au/bulkbilling](https://www.health.gov.au/bulkbilling)에서 확인하세요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